

비영리 성격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인증 가능해진다

중기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장애인 기업 선정시 정책 지원 가능
경영자금 등 조합 안정적 운영 기대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황〉

부처명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산림청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	금융위	방통위	기타
조합수	1482	557	311	296	123	137	244	83	122	119	84	98	55	9	6	6	48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장애인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애인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 상법상 회사 ▲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 지역 주민권의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부처

에 설립인가 신청→사회적기업 진흥원 검토→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4월에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 장애인기업법은 2019년 10월에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위만 가능하고 장애인기업은 될 수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482개, 교육부가 557개 등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3780개로 집계됐다. 중기부의 경우 5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 받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875개), 서울(785개), 경남(267개), 경북(213개) 등으로 많았다.

총 3780개 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장애인 확인기업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이 되기 위해선 ▲ 이사장이 장애인 ▲ 조합원

수의 50% 이상 장애인 ▲ 출자자수(금액)의 50% 이상 장애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간 대체조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 등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2030 자문단’ 운영… 청년세대 소통 강화

보좌역, 비상임단원 등 20명 구성
이영 장관 “청년 미래 도움되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자문단을 모집한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청년주간을 맞아 청년 창업행사도 다양하게 연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세대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 19~39세 이하로 꾸리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단원은 중기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



대한 보장하고, 회의참석·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활동 수당·경비 지급,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 활동 청년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임 자문단원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청년주간을 맞아 전국 6개 창업중심대학과 15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다양한 청년 창업행사도 곳곳에서 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포함해 청년 창업자 대상 투자 피칭대회(IR), 소통 행사(네트워킹), 창업 토크콘서트·특강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30 자문단을 통해 정책에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청년주간 행사가 청년 창업자 등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에코미니 정수기 등 ‘IDEA’ 3관왕

‘6인용 초슬림 식기세척기’ 본상

SK매직이 미국 ‘IDEA 2022’에서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 41’로 생활·주방부문 ‘동상(Bronze)’을 포함해 총 3관왕의 쾌거를 거뒀다.

13일 SK매직에 따르면 동상을 수상한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 41는 혁신성, 환경에 대한 배려, 기능성, 사용편리성, 심미성, 안정성, 내구성 등 평가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 없이 수압을 이용한 차별화된 에코 가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 41은 친환경 에코가전으로 생산·포장·사용 단계 모두 친환경 소재와 기능을 전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SK매직의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41’

중진공, 신산업 분야 전용 평가모형 도입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평가모형을 도입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신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2차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ICT 및 융합 신기술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개념으로 산업·기술간 창의적인 결합을 통해 창출된 산업을 말한다.

신산업 분야는 기술간 융합 및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특성을 갖고 있다. 중진공은 신산업 영위기업의 기술 및 경쟁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신산업 전용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평가모형은 일단 이들 신산업 3개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오는 15일부터 정책자금 심사시 기술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기업의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

에이스침대가 경기 안산단원구에 있는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을 체험 중심의 프리미엄 공간으로 재단장해 새로 문을 열었다.

1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안산점은 수도권 주요 거점인 안산 지역 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약 21평 규모로 확장해 고객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OSV 디지털 아트’ NFT 발행

〈오들리 새티스파잉 비디오〉

시몬스가 업계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한다.

1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MZ세대를 대표하는 영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3인인 부원, 메이킴, 차인철과 손잡고 2022 브랜드 캠페인 ‘Oddly Satisfying Video: 오들리 새티스파잉 비디오(OSV)’ 디지털 아트를 NFT로 선보인다.

이번 NFT는 유튜브 공개 한 달도 안 돼 조회 수 2000만뷰를 돌파하며 일명 ‘멍 때리기’ 열풍을 불러온 8편의 OSV 디지털 아트 중 ‘캘리포니아(Pool in C

alifornia)’편과 ‘에어펌프(The Pump)’편을 모티브로 했다.

시몬스는 오는 15일 낮 12시, 부원을 시작으로 22일 같은 시간엔 메이킴, 29일엔 차인철까지 3인의 NFT 작품 2종씩 총 6종을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NFT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드롭스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이번 NFT는 업비트NFT에서 이더리움(ETH)으로 구매 가능하며, 판매 가와 작품은 발행일 기준 24시간 전에 공개한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축소·은폐·왜곡…故 이예람 사건 ‘軍 악습 총집합’

▲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 해 사망사고… “일단 멈추세요”

▲ ‘특수통’ 조재빈 차장, 법무법인 바른서 이달부터 업무 개시

▲ 당국 “코로나 변이 반복적 발생…집단면역 달성 어려워”



▲ 8월 고용보험 가입 42만명…석달 연속 40만명대 증가

▲ 태풍에 포항 지역 생활쓰레기 한가득… 중장비 지원 절실

/사진 뉴시스